

대학생의 구강보건교육경험 및 관심도에 따른 구강보건행태와 지식수준

박소현, 김하은, 김다애, 김어진, 박서영, 이재경, 정은경, 김혜진, 이민경, 윤현서, 이정화 †
동의대학교 치위생학과

Oral health behavior and knowledge according to the oral health education experience and interests of university students

So-Hyun Park, Ha-Eun Kim, Da-Ae Kim, Ae-Jin Kim, Seo-Young Park,
Jae-Gyeong Lee, Eun-Gyeong Jung, Hye-Jin Kim,
Min-Kyung Lee, Hyun-Seo Yoon, Jung-Hwa Lee †
Dept. of Dental Hygiene, Dong-Eui University

ABSTRA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oral health education experience and interest in oral health on university students' oral health behavior and oral health knowledge.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purpose of demonstrating that proper oral health education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in order to improve oral health management behavior. With regard to teeth brushing habits, the oral health care behavior of the subjects was of an overall high average value. Average figures relating to diet and prevention questions was similar. However, the average number of oral hygiene items came out lowest. Although it is good practice to brush up on oral hygiene, behavior related to oral hygiene was relatively poor. The subjects' level of oral health knowledge contained the three items with the highest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Tongue should be wiped when brushing', 'Brushing should be done by rotation (teeth from top to bottom and teeth from bottom to top)', 'Fluoride eliminates bad breath', 'Toothbrushes should be replaced with a new one within 3 months', and 'Knowledge of brushing'. The knowledge level of fluoride and oral hygiene products was low. The study demonstrated that those with a greater experience of oral health education took better oral health care, in terms of brushing and prevention. However, behavior in terms of diet and food showed almost no difference and it was hard to find patterns of good behavior. Experience in oral health education has led to a high level of 'interest' oral health care.

Key words : Oral health behavior, Knowledge, Oral health education experience, Interests

† Correspondence to Lee J-H,
Tel: +82-51-890-4239
Fax: +82-0505-182-6878
E-mail: yamako93@deu.ac.kr

Received Mar 11, 2018
Revised Mar 12, 2018
Accepted Mar 19, 2018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대학생은 인구특성상 큰 집단에 속하며 미래의 주역으로서

신체나 심리적으로 성숙하고, 취업과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시기로 올바른 인생을 살기 위해 자신의 가치를 확립하고 고도의 탐구가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에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는 일은 학업수행을 원활히 하도록 도와주고 건강한 신체와 심리는 일상생활과 학교생활에 자신감을 갖고

생활 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1]. 또한 대학생들의 구강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실천 행동은 사회 주변인과 가정 내에서 가족 구성원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의한 건강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상태를 의미한다. 최근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수준의 개선과 의학의 발달로 국민의 수명이 크게 연장됨에 따라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으로, 신체적인 것만의 관심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영적인 건강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되었다. 그 중에서 구강질환은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2].

구강건강이란 구강 내 질환에 이환되어 있지 않고 구강의 기능(저작, 발음, 심미)을 적절히 발휘하여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장애가 되지 않는 상태이다. 구강질환은 조기에 발견, 치료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고통도 악화되고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드는 질환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구강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및 치료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교육을 통해 구강보건행태와 지식을 함양하고 구강건강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3].

구강보건교육 및 사업의 대상으로 영유아를 비롯한 청소년, 임산부, 근로자와 노인 등으로 골고루 분포 되어 있었지만 대학생과 같은 청년층에 관한 구강보건교육 및 사업과 통계자료는 찾기 어려웠다. 구강건강의 증진 및 예방을 위한 여러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구강보건교육 및 사업은 배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4].

현재 우리나라는 구강건강증진 목적으로 구강보건교육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학교에서 따로 구강보건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구강보건교육사업이 미흡한 만큼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과 관심 또한 적어 구강보건교육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을 위한 구강보건교육은 이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자신의 구강건강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실천 행동을 마지막으로 점검할 기회로서 구강건강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구강보건교육 제공이 필요하다[5].

많은 대학생들은 양대 구강병(치아우식증, 치주질환)을 보유하고 있으며, 치아우식증으로 인해 치과치료를 많이 받고 있으며, 자신의 구강상태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4].

바람직한 구강보건행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나 신념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구강보건교육을 통하여 구강보건에 관한 개개인의 지식을 향상시키고 구강관리태도를 변화 시킴으로써 올바른 구강건강관리 행동을 습관화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4].

따라서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의 구강보건교육경험 유무와 구강건강관심도가 구강건강관리행태와 구강보건지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함으로써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이 필요성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지역 대학의 대학생 총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중 설문내용이 불충분한 응답자 50부를 제외한 450부를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 연구방법

2017년 4월 5일부터 4월 26일까지 총 21일간 자기 기입식 설문을 시행하였으며, 설문문항은 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8 문항), 구강건강관리행태(30문항), 구강보건지식수준(30문항)으로 총 6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분석방법

자료 분석은 통계프로그램은 SPSS ver 23.0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구강관리행태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 구강보건지식수준 정답은 정답 1점, 오답 0점으로 구성하여 정답률이 높을수록 구강보건지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III.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

학생 37.8%, 여학생 62.2%, 학년은 3학년 36.0%, 2학년 26.2%, 1학년 26.0%, 4학년 11.8%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은 보건 32.2%, 비보건 67.8%로 나타났다. 친인척 치과관련 종사자는 ‘예’ 11.6%, ‘아니오’ 88.4%이었다. 거주형태는 ‘가족/친척과 함께’ 66.7%, ‘친구와 함께(기숙사)’ 20.7%, ‘혼자’ 12.7% 순으로 나타났다. 구강건강관심도는 ‘보통’ 33.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한달 소득 ‘30~40미만’이 35.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강보건교육경험은 ‘예’ 18.9%, ‘아니오’ 81.1%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Characterization	Classification	N (%)
Gender	Male	170(37.8)
	Female	280(62.2)
Grade	Grade 1	117(26.0)
	Grade 2	118(26.2)
	Grade 3	162(36.0)
	Grade 4	53(11.8)
department	Health related	145(32.2)
	Health unrelated	305(67.8)
There were dental workers among relatives.	Yes	52(11.6)
	No	398(88.4)
Living type	Alone	57(12.7)
	With friends (dormitory)	93(20.7)
	With family/relatives	300(66.7)
	Not at all	20(4.4)
Oral health concern	Not interested	116(25.8)
	Moderate	151(33.6)
	A little	125(27.8)
Monthly income(10,000Won)	Very interested	38(8.4)
	0 - <10	42(9.3)
	10 - <20	42(9.3)
	20 - <30	113(25.1)
	30 - <40	158(35.1)
Oral health education experience	40 ≤	95(21.1)
	Yes	95(18.9)
	No	410(81.1)

2. 구강건강관리행태

구강건강관리행태는 <Table 2>와 같다. 식이 문항 전체 평균은 2.63±0.75이고 ‘일주일에 술을 자주 마시는 편이다.’

2.37±1.1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하루에 당(초콜릿, 사탕 등)을 많이 섭취한다.’ 2.81±1.1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칫솔질 문항 전체 평균은 3.62±0.57이고 ‘칫솔질 시 혀를 닦는다.’ 4.30±0.9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음식 섭취 후 매번 칫솔질을 한다.’ 2.98±0.9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예방 문항 전체 평균은 2.63±0.67이고 ‘불소도포를 받을 의향이 있다.’ 3.02±1.1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나는 정기적으로 불소도포를 한다’ 1.96±0.8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구강관리용품 문항 전체 평균은 2.08±0.72이고 ‘평소 구강양치액(가글)을 사용한다.’ 2.54±1.1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물 사출기를 사용한다.’ 1.69±0.8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Table 2> Oral health care behavior

	Items	Mean ± SD
Diet	Eat a lot of sugar per day(chocolate, candy, etc.).	2.81±1.18
	Eat a lot of sweets a day.	2.66±1.06
	Drink lots of carbonated drinks a day.	2.64±1.13
	Often drink alcohol a week.	2.37±1.13
	Drinking is a lot of drinking.	2.64±1.20
	Total	2.63±0.75
Brushing	Brushing teeth over three times a day.	3.44±0.98
	After eating food, brushing every time.	2.98±0.95
	Brush before bedtime.	4.25±0.92
	More than 3 minutes brushing.	3.63±0.97
	Teeth brushing using roll method.	3.62±1.05
	Tongue brushing.	4.30±0.95
Prevention	Keep brushing teeth on gum bleeding.	3.13±1.19
	Total	3.62±0.57
	I usually visit the dentist for treatment.	3.00±1.18
	If your teeth or gums get sick, visit the dentist without delay.	2.85±1.12
	Regular check-up every 6 months.	2.26±1.14
	Regular dental visits.	2.32±1.10
	Use toothpaste containing fluoride.	3.02±1.01
	I regularly apply fluoride.	1.96±0.85
	I am willing to apply fluoride.	3.02±1.17
	Total	2.63±0.67
Oral care products	usually use mouthwash.	2.54±1.12
	Use an interdental toothbrush.	2.28±1.23
	Use an rubber tipl stimulator	1.74±0.82
	Use a tongue cleaner.	2.06±1.15
	Use a water pik	1.69±0.80
	Use floss	2.19±1.14

	Items	Mean ± SD
Oral care products	Use secondary oral care products to prevent tooth decay.	2,02±0.98
	Use secondary oral care products to improve periodontal disease.	1,90±0.88
	Use secondary oral care products to remove bad breath.	2,14±1.08
	Use oral secondary oral care products to remove food debris.	2,10±1.02
	I am satisfied with the effect of improving oral health after using oral care products.	2,18±1.04
	Total	2,08±0.72

* by t- test

3. 구강건강 지식수준

구강건강 지식수준은 <Table 3>와 같다. ‘칫솔질을 할 때 혀도 닦아야 한다.’ 96.2%, ‘칫솔질은 회전법으로(잇몸에서 치아방향으로 윗니는 위에서 아래로 아랫니는 아래에서 위로)해야 한다.’ 91.6%, ‘칫솔은 3개월 이내에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한다.’ 88.4%순으로 정답률이 높게 나타났고 ‘구강 양치액(가글) 사용 후 입을 헹구어야 한다.’ 35.8%, ‘불소는 구취를 없애준다.’ 36.7%, ‘고무 치간 자극기는 비대한 잇몸에 사용할 수 있다.’, ‘불소는 치태를 제거해준다.’ 37.1%순으로 정답률이 낮게 나타났다. 대체로 구강관리용품과 불소에 대한 지식은 낮게 나타났다.

<Table 3> Oral health knowledge

Question	Percent correct
	N (%)
Brushing should be done within 3 minutes after meals	289(64.2)
One brushing time should be more than 3 minutes.	376(83.6)
Brushing should be done by roll method (top to bottom, bottom to bottom, from the gingival to the teeth).	412(91.6)
When brushing, you should wipe your gums.	254(56.4)
You should brush your tongue when brushing.	434(96.2)
The most important reason to clean it is because of the odor prevention.	307(68.2)
The toothbrush should be kept in a humid environment after use.	379(84.2)
The toothbrush keeps the toothbrush head up.	393(87.3)
The toothbrush should be replaced within three months.	398(88.4)
When brushing, the toothbrush should be wiped with water.	326(72.4)

Question	Percent correct
	N (%)
Use toothpaste as much as possible.	392(87.1)
If you do not rinse your mouth properly after brushing, it will cause bad breath.	397(88.2)
A rubber dental stimulator can be used on bare gums.	167(37.1)
Dental floss is suitable for patients with relatively small teeth.	240(53.3)
The purpose of using a tongue cleaner is to remove bad breath.	319(70.9)
After using mouthwash, you should rinse your mouth.	161(35.8)
If you use mouthwash, you do not need to brush your teeth.	393(87.3)
Fluorine restores fine initial cavities.	317(70.4)
Fluoride can alleviate the ache of the teeth.	245(55.4)
Fluorine makes the teeth white and clean.	209(46.4)
Fluoride removes plaque.	167(37.1)
Fluoride removes bad breath.	165(36.7)
Fluoride shows where there is plaque.	268(59.6)
Scaling should be done about twice a year.	326(72.4)
Scaling helps remove bad breath.	339(75.3)
Scaling should be done periodically.	360(80.0)
Scaling results in the side effects of tooth shaking.	290(64.4)
If scaling is not done regularly, gum disease will occur.	211(46.9)
Scaling is a treatment to grind teeth.	300(66.7)
You should brush your teeth after drinking alcohol.	387(86.0)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교육 경험 유무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교육경험 유무는 <Table 4>와 같다. 구강보건건강관심도에서 관심없다가 구강보건교육 경험군 3.7%, 교육보건교육 비경험군 96.3%로 나타났다. 구강건강관심도가 보통인 경우 구강보건교육 경험군은 6.6, 구강보건교육 비경험군 96.3%로 구강건강관심도가 보통인 사람 또한 교육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강건강관심도에서 관심 있음이 구강보건교육 경험군 15.3%, 구강보건교육 비경험군 84.7%로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이 있어도 구강보건교육경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Oral health education experie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zation	Division	Yes	No	χ^2	p
Gender	Men	12(7,1)	158(92,9)	1,13	0,311
	Female	28(10,0)	252(90,0)		
Grade	Grade 1	8(6,8)	106(93,2)	4,09	0,252
	Grade 2	7(5,9)	111(94,1)		
	Grade 3	18(11,1)	144(88,9)		
	Grade 4	7(13,2)	46(86,8)		
Department	health-related	12(8,3)	133(91,7)	0,099	0,86
	health-unrelated	28(9,2)	277(90,8)		
Oral Health Concern	Not interested	5(3,7)	131(96,3)	13,889	0,001
	moderate	10(6,6)	141(93,4)		
	interested	25(15,3)	138(84,7)		
Monthly income	0-<10	3(7,1)	39(92,9)	28,99	0
	10-<20	5(11,9)	37(88,1)		
	20-<30	4(3,5)	109(96,5)		
	30-<40	7(4,4)	151(95,6)		
	40≤	21(52,5)	74(18,0)		

*p<0,05, ***p<0,001 by Chi-square test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 지식수준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 지식수준은 <Table 5>과 같다. 비보건계열의 구강보건 지식수준 17.15점, 보건계열의 구강보건 지식수준 18.43점으로 비보건계열보다 보건계열이 구강보건 지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Oral health knowledge level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zation	Division	Mean (SD)	p-value
Gender	Men	17,67	0,687
	Female	17,5	
	Total	17,56	
Grade	Grade 1	17,68	0,865
	Grade 2	17,66	
	Grade 3	17,63	
	Grade 4	17,11	
	Total	17,56	
Department	health-related	18,43	0,002
	health-unrelated	17,15	
	Total	17,56	

Characterization	Division	Mean (SD)	p-value
Oral Health Concern	Not interested	17,53	0,328
	moderate	17,21	
	interested	17,92	
Total		17,56	
Monthly income	0-<20	17,09	0,426
	20-<30	18,05	
	30-<40	17,58	
	40≤	17,38	
	Total	17,56	

6.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관심도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관심도는 <Table 6>과 같다. 남학생의 구강건강관심도는 보통 40%로 가장 많았으며, 여학생은 관심 있음 41.1%로 가장 많았다. 성별에 따른 구강건강관심도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구강건강관심도가 높았다.

〈Table 6〉 Oral health concern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zation	Division	Not interested	moderate	interested	χ^2	p
Gender	Men	54(31,8)	68(40,0)	48(28,2)	8,408	0,015
	Female	82(29,3)	83(29,6)	115(41,1)		
	Total	136(30,2)	151(33,6)	163(36,2)		
Grade	Grade 1	33(28,2)	43(36,8)	41(35,0)	6,158	0,406
	Grade 2	37(31,4)	43(36,4)	38(32,2)		
	Grade 3	54(33,3)	50(30,9)	58(35,8)		
	Grade 4	12(22,6)	15(28,3)	26(49,1)		
	Total	136(30,2)	151(33,6)	163(36,2)		
Department	health-related	40(27,6)	50(34,5)	55(37,9)	0,719	0,698
	health-unrelated	96(31,5)	101(33,1)	108(35,4)		
	Total	136(30,2)	151(33,6)	163(36,2)		
Monthly income	0-<20	31(36,9)	29(34,5)	24(28,6)	10,763	0,096
	20-<30	35(31,0)	41(36,3)	37(32,7)		
	30-<40	47(29,7)	56(35,4)	55(34,8)		
	40≤	23(24,2)	25(26,3)	47(49,5)		
	Total	136(30,2)	151(33,6)	163(36,2)		

*p<0,05 by Chi-square test

7. 구강보건교육경험 유무에 따른 구강건강관리행태 및 지식

구강보건교육경험 유무에 따른 구강건강관리행태 및 지식은 <Table 7>과 같다. 먼저 행태를 보면 구강보건교육 경험군의 칫솔질 행태 28.03±3.58, 비경험군의 칫솔질 25.09±3.91로 경험군의 칫솔질 행태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강보건교육 경험군의 예방행태 21.28±6.57, 비경험군의 예방행태 18.16±4.41로 경험군의 예방행태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강보건교육 경험군의 구강관리용품행태 27.90±10.41, 비경험군의 구강관리용품행태 22.37±7.53으로 경험군의 구강관리용품행태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강보건교육 경험군이 식이와 구강보건지식을 제외한 칫솔질, 예방, 구강관리용품행태가 더 좋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Table 7> Oral health care behavior and knowledge according to oral health education experience

Oral health education experience	Yes	No	F	P
Characteristic				
Diet	13,08±4,36	13,13±3,69	0,008	0,927
Behavior				
Brushing	28,03±3,58	25,09±3,91	20,843	0
Prevention	21,28±6,57	18,16±4,41	16,459	0
Oral care products	27,90±10,41	22,37±7,53	18,233	0
Oral health knowledge	18,28±3,47	17,50±4,23	1,26	0,262

*p<0,05 by one way ANOVA

8. 구강보건교육경험 유무에 따른 구강건강관심도

구강보건교육경험 유무에 따른 구강건강관심도는 <Table 8>과 같다. 교육경험유무에 따른 구강건강관심도는 구강보건교육 경험군이 구강건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62.5%로 구강보건교육 경험군에서 구강건강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8> Oral health concerns according to oral health education experience

Oral health concerns	Not inter- ested	moderate	interested	x ²	p
Education experience					
Yes	5(12,5)	10(25,0)	25(62,5)	13,889	0,001
No	131(32,0)	141(34,4)	138(33,7)		

***p<0,001 by Chi-square test

9. 구강보건교육경험, 구강건강관심도, 행태 간의 상관관계

상관분석은 <Table 9>와 같다. 구강보건교육경험과 행태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구강보건교육 경험군은 칫솔질, 예방, 구강관리용품 행태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구강보건교육경험유무와 구강보건지식, 구강건강관심도와 구강보건지식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Table 9> Correlation between oral health education experience, oral health concern, and behavior

	Education experience	Concern	Behavior	Knowledge
Education experience	1			
Concern	0,000***	1		
Behavior	0,000***	0,000***	1	
Knowledge	0,262	0,112	0,000***	1

*p<0,05, ***p<0,001 by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IV. 고찰

구강건강이란 구강 내 질환에 이환되어 있지 않고 구강의 기능을 적절히 발휘하여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장애가 되지 않는 상태이다[3]. 대학생은 인구특성상 큰 집단에 속하며 미래의 주역으로 신체나 심리적으로 성숙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시기로 자신의 가치를 확립하고 고도의 탐구가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에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는 건강한 신체와 심리를 가지고 일상생활과 학교생활을 자신 있게 하는 것은 중요한 요소이다[1].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구강보건교육경험 유무와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구강건강관리행태와 지식수준에 영향을 파악하여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구강건강관심도에서는 ‘보통’ 33.6%로 가장 높게 나타났[7]과 송[13]과 박[12]의 연구에서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도 ‘그렇다’의 수준과 보통(52.4%)이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이는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도는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여겨지며, 구강건강관심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대중적인 홍보와 매체의 개

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구강보건교육경험유무에서는 ‘예’ 8.9%, ‘아니오’ 91.1%로 나타나 교육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송[13]의 연구에서 구강보건교육경험을 받은 대학생이 낮게 나타난 것은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결과라 여겨진다. 그러므로 대학생들을 위한 구강보건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구강건강관리 행태에서는 칫솔질 행태가 전체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송[13]의 연구와 유사하였다. 이는 칫솔질이 구강건강관리법 중 가장 대중화 되어 있고 일상생활에서 접근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칫솔질 행태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구강보건 지식수준에서는 칫솔질에 대한 지식은 높았고 대체로 구강관리용품과 불소에 대한 지식은 낮게 나타나 송[13]의 연구와 칫솔질에 대한 지식수준은 일치하였다. 이는 칫솔질이 가장 대중화 되어 있어 칫솔질에 대한 교육이 일반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이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 숙지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 송[13]의 연구에서 불소도포의 효과에 대한 신뢰가 높고 치실사용이 효과적이라고 보고하는 등 구강관리용품과 불소에 대한 지식과 인식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송[13]의 연구에서는 전공과 성별에 중점을 두고 설문조사가 이루어져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의 조사대상자의 비율이 다소 유사하였고 따라서 본 연구와 비교하여 볼 때 보건계열의 비율이 높아 관련 지식이 우수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구강건강관심도에 따른 구강보건교육경험 유무에서는 ‘관심없음’에서 경험군이 3.7%, 비경험군이 96.3% ‘관심있음’에서 교육경험이 있는 사람이 15%, 없는 사람이 84%로 이는 노[3]의 연구에서 ‘전혀 신경안씀’에서 경험군이 46.2%, 없는 사람이 76.7% ‘관심있음’에서 경험군이 15.3%, 비경험군이 84.7%로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이는 관심이 있더라도 교육을 적게 받은 것은 교육 및 사업대상으로 아동, 청소년, 임산부, 근로자, 노인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 자료는 어느 정도 개발되어 있지만, 대학생과 같은 젊은 층으로 하는 교육 및 사업은 매우 적어 구강보건교육의 접근성이 낮아서 나타난 결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구강보건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구강보건교육프로그램과 매

체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전공에 따른 구강보건 지식수준에서는 비보건계열의 구강보건 지식수준은 17.15점, 보건계열의 구강보건 지식수준은 18.43점으로 보건계열학생들이 비 보건계열 학생들보다 지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8]의 연구에서 보건계열학생들이 비 보건계열 학생들보다 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이는 보건계열은 전공이 신체와 관련이 있어 구강건강에 관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판단되며, 비 보건계열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체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구강보건지식에 대한 다양한 접근경로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구강보건교육경험 유무에 따른 구강건강관리행태에서 구강보건교육 경험군에서는 칫솔질, 예방, 구강관리용품 순서로 행태가 좋았고, 구강보건교육 비경험군은 칫솔질, 구강관리용품, 예방 순서로 행태가 좋았다. 이[9]의 연구에서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후 칫솔질, 정기적인 치석제거, 구강관리용품사용, 식이조절 순서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이는 구강보건교육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예방에 대한 지식이 없어 이에 대한 효과를 알지 못하여 행태로 이어지지 못한 결과라 여겨지며, 구강건강관리행태는 구강보건교육을 통하여 변화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여겨진다. 그러므로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예방분야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구강보건교육경험 유무에 따른 구강보건 지식수준에서는 구강보건 지식수준이 구강보건교육 경험군 18.28점, 구강보건교육 비경험군 17.50점으로 구강보건교육 경험군에서 지식수준이 더 높게 나타나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구강보건지식과 구강보건행위 및 구강위생상태가 모두 좋은 것으로 보고한 김 등[14], 박 등[15] 조 등[16]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구강보건교육이 구강보건지식수준을 향상시켜 나타난 결과라 여겨진다. 그러므로 대학생들의 구강보건 지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강보건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기적으로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구강보건교육경험 유무에 따른 구강건강 관심도에서는 구강보건교육 경험군은 ‘관심 있음’ 62.5%, 구강보건교육 비경험군 ‘보통’ 34.4%로 이는 배[11]의 연구에서 전문대학생들의 구강보건교육경험이 있을 때 관심도가 높고, 구강보건지식수준이 높을수록 관심도가 증가하여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이

는 구강보건교육이 구강건강관심도를 높여주는 결과라 여겨지며, 구강건강관심도를 높여 스스로 구강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구강보건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일부지역의 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모집단을 대표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며, 설문조사요원의 개인적 오차와 응답자의 자가진단에서 오는 오차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모집단을 확대시켜 대표성을 높이고, 설문조사 전 응답자에게 조사에 대한 설명을 해주어 자가진단 오차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구강보건교육경험 및 구강건강관심도에 따른 구강건강관리행태와 구강보건지식수준을 조사하기 위해 2017년 4월 3일부터 4월 26까지 부산지역에 위치한 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행태와 지식수준 각 30문항씩 총 60문항으로 이루어진 설문지를 이용하여 시행하였다. 최종 450부의 수집된 자료는 SPSS ver 23.0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교차분석, 일원배치분산분석,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높게 나타났고 학년은 3학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강건강관심도는 ‘보통’이 가장 높으며 구강보건교육경험 유무는 ‘없음’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조사대상자들의 구강건강관리행태는 칫솔질 문항의 전체 평균 수치가 가장 높았고 식이와 예방문항의 평균수치가 비슷하였고 구강관리용품문항의 평균 수치가 가장 낮았다.

즉 칫솔질행태는 좋으나 구강관리용품행태는 비교적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사대상자의 구강보건 지식수준은 정답률이 가장 높았던 세 문항인 ‘칫솔질을 할 때 혀도 닦아야 한

다.’, ‘칫솔질은 회전법으로(잇몸에서 치아방향으로 잇나는 위에서 아래로 아랫니는 아래에서 위로)해야 한다.’, ‘칫솔은 3개월 이내에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한다.’를 보면 칫솔질관련 지식수준이 높다고 판단되며, 정답률이 가장 낮았던 세 문항인 ‘불소는 구취를 없애준다.’, ‘고무 치간 자극기는 비대한 잇몸에 사용할 수 있다.’, ‘불소는 치태를 제거해준다.’를 보면 불소와 구강관리용품에 대한 지식수준은 대체로 낮다고 판단된다.

넷째, 성별에 따른 구강건강관심도에서 남학생은 ‘보통’이 가장 많았고 ‘관심있음’이 가장 낮았다. 그에 비해 여학생은 ‘관심있음’이 가장 높았고 ‘관심없음’과 ‘보통’이 비슷하다. 따라서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도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구강보건교육경험 유무에 따른 구강건강관리행태는 경험군이 비경험군보다 칫솔질, 예방, 구강관리용품에 대한 행태가 높게 나타났다. 식이행태는 거의 동일한 수치이며 칫솔질, 예방, 구강관리용품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여섯째, 구강보건교육경험 유무에 따른 구강건강관심도에서 경험군은 ‘관심있음’이 가장 높게 나왔고 비경험군은 ‘보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대학생들의 구강건강관리행태를 변화시키고 구강건강지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터넷, 잡지 등과 같은 다양한 매체의 활용, 구강보건교육 시설 확충 등을 통한 구강보건교육 접근성과 교육수준을 높여 구강건강관심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구강보건 경험율의 향상과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도와 행태, 지식수준 향상을 위한 대학생 맞춤 구강보건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 되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Yoon SU, Jang SJ: Convergent relationship between oral health knowledge and oral health behavior of health-related and health-unrelated majors university students in some area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 7(1):97–104, 2016
2. <http://www.who.int/about/mission/en/>
 3. Roh SI: Recognition for the health of the mouth and behaviors on some of university students. master's thesis. Daegu Haany University, Daegu, 2009.
 4. Kim GR: Comparative Study on Partial Undergraduates' Oral Health Behavior in Relation to the Oral Health Education.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2009.
 5. Kim SJ: A Study of Oral Health recognition and behaviors of college students in Jeonbuk. master's thesis, Wonkwang University, Jeollabuk-do, 2012.
 6. Do JI: The Effect Oral Health Education has on The Knowledge and Behavior Concerning Oral Health, master's thesis, Kongju National University, Kongju, 2014.
 7. Kang MJ: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ived oral health concerns and the oral health behaviors among some high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2013.
 8. Lee MJ: Knowledge Belief Attitude and Behavior Concerning Oral Hygiene in Healthcare and Non-Healthcar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3(2):169–182, 2003.
 9. Lee JH: A Study about Relation between Dental Health Realization and Practice.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Yongin, 2007.
 10. Lim JY: Effect of oral health class by school nurse on children's oral health knowledge and oral health behavior,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ongju, 2002.
 11. Bea JY: A Study on the Factors Effecting the Oral Health Concern and Oral Health Care, master's thesis, Yeungnam University, Gyeongsan, 2002.
 12. Park HR, Moon SJ: Connections between the Subjective Awareness Characteristics of Oral Health of Certain Adults and Their Oral Health Knowledge and Practice Behavior of Oral Health 13(1):300–310, 2013.
 13. Song SK: A study on the recognition and attitude of oral health in Korean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Wonkwang University, Iksan, 2004.
 14. Kim GR, Kim M, Kim YS. Undergraduates' oral health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 relative to oral health educ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Oral Health* 34(2):178–186, 2010.
 15. Park HR, Moon SJ. Connections between the Subjective Awareness Characteristics of Oral Health of Certain Adults and Their Oral Health Knowledge and Practice Behavior of Oral Health. *The Korea Contents Society* 13(1):300–310, 2013.
 16. Cho HS, Hwang SH. Impact of Oral Health Education on the Oral Health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Health Education* 11(1):7–15, 2010.